

9/10/17

설교 제목: 사랑의 회복 (아가서 6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6 장

- (아 6: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 (아 6:2)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 (아 6: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 (아 6: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 (아 6:5)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 (아 6:6)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절관주** 아 4:2
- (아 6: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 (아 6: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절관주** 왕상 11:3
- (아 6: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 (아 6: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 (아 6: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 (아 6: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 (아 6: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 6: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신부 솔람미 여인은 전장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신랑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한 후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을 찾아 헤매는 솔람미 여인의 모습을 본 예루 살렘 여인들은 도대체 네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이토록 찾아 헤매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솔람미 여인은 자신의 신랑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부인 솔람미 여인으로부터 신랑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듣고 난 후 예루살렘 여인들은 태도를 바뀌어 이제 그들이 나서서 솔람미 여인의 신랑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어 주님 곁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6:2)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부가 신랑의 소재를 알아냈습니다.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습니다.

'자기 동산'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향기로운 꽃밭'은 성도들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 6: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는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신부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서로의 관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선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꽃이 피기 전의 백합은 다른 화초들과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난 구석이 없지만 일단 꽃이 피어 향기를 내기 시작하면 그 향이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본래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삽니다.

주께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신부는 찾아 헤매던 신랑을 발견했고 신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까지 온전히 회복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아 6: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은 신부가 잘못을 깨닫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 왔을 때 과거의 잘잘못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사랑아'라고 부르며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디르사' '예루살렘' 등에 비유합니다.

'디르사'는 '즐거움'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성읍으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왕상 15:33; 16:8, 23)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수도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 솔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다시 받아 준 신랑 솔로몬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신랑은 신부가 기를 높이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한 어떤 전쟁에서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 6:5)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아 6:6)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 6: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신랑은 신부의 잘못을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 사랑은 눈이 먼, 콩깍지가 낀 사랑입니다.

신랑은 먼저 신부의 눈에 대해 언급하며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보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의 눈길이 강렬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이 하도 강렬하여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4장에서 자신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 신부의 잘못으로 신랑을 놓쳤으나 신랑은 다시 돌아온 신부를 여전히 사랑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행여 잘못을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 6: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 6: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왕후가 700 명, 첩이 300 명이었습니다. (왕상 11:3)

그러나 이 구절을 봐서 본서를 쓸 당시에는 왕비가 60 명이요 후궁이 80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의 완전한 자'는 솔람미 여인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솔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고 흠이 있었으며 또 신랑에게 잘못도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왕이 솔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 6: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여인들은 신부를 아침 빛 같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아침 빛은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트면서 비취는 밤과 낮을 가르는 빛입니다.

교회는 아침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한 밤과 같은 세상을 향해 아침 빛과 같이 선명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14 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인들은 신부를 달같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춥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나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빛이 나는 솔람미 여인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신부를 해같이 맑다고 합니다.

'맑다'는 원어로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흠이나 점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인들은 신부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합니다.

지상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세상에서 끊임 없이 죄와 마귀와 싸웁니다.

군대가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당장은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어렵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여 깃발을 높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 6: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낫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난해합니다.

누가 한 말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했다고 간주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2장에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아 2:15) 라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부가 '포도 송이에 순이 낫는가'를 보려고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회복되어 순이 다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라고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도 모르게 신랑 솔로몬 왕에게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 왕과 그 방백들의 수레에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완전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아 6: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제 술람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 6: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 오라고 하자 신랑이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보려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마하나임 지방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는 말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거리로 여기지 말라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흥미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족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다시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혹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당신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